

# 나노라

도쓰카와무라 ( 十津川村 )

제 12 호

# 심신 재충전의 마을

## 도쓰카와 온천 '호텔 스바루' 취재

개업 30 주년을 맞이한 이 호텔은 중국 고대사상가 공자(孔子)의 말을 빌리자면, '삼십이립'(三十而立; 서른 살이 되어 비로소 자립한다.)입니다.

호텔 이름의 유래 : 예로부터 이 지방에서는 연이어 있는 산봉우리를 '스바루'라고 불렀으며, 이 호텔은 그 산맥을 이미지화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호텔 온천의 특징에 대해 :

☆ '스바루'의 온천 도쓰카와 온천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천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을 도입한 도쓰카와 온천지 중 하나로, 양질의 온천이 자랑거리입니다. (100% 원천수 흘림방식은 온천수를 순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 원천수 흘림방식. 가온가수 순환(加温加水循環) 방식 아님.

☆ 온천수 성질은 나트륨 탄산수소염으로, 어깨 결림, 목 통증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노천탕은 누워서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 과거 5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약 6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포켓토크라는 통역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호텔 '스바루'의 온천탕

매년 8월 중순에는 호텔 앞 광장에서 마을의 4개 무용 보존회가 모여 오오도리(大踊り) 춤을 선보이는 '후레아이 모노가타리'라는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나라여자대학 무토 야스히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도쓰카와무라의 오오도리 춤은 근세 풍류무(風流踊)의 특징을 잘 전승하고 있어 1979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출전 : 『대학적 나라가이드(大学の奈良ガイド)』

2009년 4월 쇼와도(昭和堂) 무토 야스히로(武藤康弘)



호텔 '스바루'의 노천탕 중 한 곳



호텔 '스바루'의 지배인 미우라 씨와 필자(호텔 현관 앞)

## 호텔 '스바루'가 독자 여러분께 보내는 메시지 : 자연 그대로의 온천, 훌륭한 온천을 즐기세요.

### 도쓰카와무라 사무소 산업과(관광그룹) 계장 누마히라 씨 취재

Q: 도쓰카와무라 관광시 가장 곤란한 점은 무엇입니까?

A: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교통이 불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도쓰카와무라 사무소가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실시해 왔나요?

A: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선버스 캐시백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중에 노선버스를 타고 도쓰카와무라 내의 대상시설에 숙박하면 왕복 버스비가 무료가 되기 때문에 비수기인 겨울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A: 앞으로 오사카부 센난시(泉南市) 및 와카야마현 다나베시(田辺市)와 연계해 관광 프로모션을 실시할 것입니다. 간사이공항에서부터 광역적인 관광객 유치의 촉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킹을 하는 관광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민박업자를 늘리고, 숙박시설의 화장실을 서양식으로 개조, 와이파이 정비보조, 자동번역기 구입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마키 신사(玉置神社)

표고 10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다마키 신사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신사로,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연중 일본 각지에서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니 바로 이해가 갔습니다. 다마키 신사 주변에는 수령 3000년이 넘는 나라현 최대의 삼나무 진다이시(神代杉; 오랜 기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삼목재)를 비롯해 거대한 삼나무가 많아 오랜 역사에 압도됩니다.



역사의 연륜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 지역 진흥에 힘쓰는 사람들



누마히라 씨와 필자

( 2014 년에 세워진 ' 세계유산 ' 비석에서 )

풍경은 아름다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도쓰카와무라 주민 4 명의 말씀을 들  
어보았습니다 .



하테나시 취락에 살고 있는 이와모토 씨  
( 사진제공 : 도쓰카와무라 사무소 )

★하테나시 취락 ( 果無集落 ) 은 현재 약 10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인 반면 ,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 그래서 지역민이 방  
문객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 예로 , 취  
락 주민의 집 앞을 지날 때 ,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휴식 장소를 개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놀람과 동  
시에 이 이상의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



도쓰카와무라의 아침



' 고헤치 ( 小辺路 ) ' 에서

★호텔 스텔바루의 지배인 미우라 씨는 경험이 풍부한 호텔맨  
으로 도쓰카와무라 지역 진흥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

오른쪽은 호텔 스텔바루의 QR 코드입니다 . ➔



★농가민박 ' 야마모토 ' 의 경영자 나카미나미 씨 부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안내 해주신 도쓰카와무라 사무소 직원 누마히라 씨는 교  
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 고향인 도쓰카와무라에 돌아와  
취직하였습니다 .



변화한 도시에서 도쓰카와무라로 돌아온 누마히라 씨의 뒷  
모습을 보고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  
이 있기 때문에 도쓰카와무라의 초록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관광객인 저는 길을 걸다가 뱀을  
만난것 만으로도 겁이 났는데 ,  
나카미나미 부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슴 , 토끼 , 원숭이 , 곰을 본다  
고 합니다 . 전원풍경을 동경하는  
사람이 많지만 ,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생활면에서의 불편함 , 어  
려움도 상상이 될 것입니다 . 8 년  
전 기이반도 ( 紀伊半島 ) 대홍수  
때는 수해를 입어 정전과 단수 ,  
교통이 끊기고 휴대전화 통신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복구가 되  
어 관광객에게 훌륭한 숙박시설  
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감동하였습니다 .



나카미나미 씨의 미소는 저에게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  
다 .

오춘란

# 비경의 도쓰카와무라 (十津川村)

## Voyager hors des sentiers battus à Totsukawa

프랑스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Voyager hors des sentiers battus.'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을 벗어나, 알려지지 않은 곳을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나라현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벗어나, '비경(秘境)'이라 불리는 자연이 풍부한 '도쓰카와무라(十津川村)'로 함께 떠나지 않으시겠어요?

도쓰카와무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알기 위해 농가민박을 했습니다. 다음날은 도쓰카와무라에 이주해 온 젊은이가 운영하는 'KIRIDAS'라는 목공품을 제조, 판매하는 장소를 취재 하였습니다.

### 농가민박 '야마모토 (山本) Farm-inn Yamamoto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현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농가민박을 체험 하였습니다.



대자연에 둘러싸인 100여년 된 일본가옥에 도착하니, 물레방아 소리가 귀에 들어와 하루의 피곤함을 잊은 듯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농가민박 '야마모토 (山本)'를 경영하고 있는 나카미나미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며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방 두개로 나누어진 별채에서 묵었습니다. 한쪽 방에는 침대가 있고, 또 한쪽 방에는 이불이 있습니다. 유카타와 수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채에는 최신식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도 있어 쾌적합니다. 안채에 있는 욕실도 깨끗합니다. 욕실 사용법은 설명이 영어로 되어있어서 외국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에 짐을 두고 거실로 이동해서 여주인이 차려주신 맛있는 가정식을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채소가 듬뿍 들어간 일식요리입니다. 또한, '유베시 (柚べし)'라는 유자를 이용한 보춘식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채소 튀김도 아마고 (연어과의 민물고기)와 소면도 매우 맛있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린 투어리즘 (Green Tourism)이란?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며 현지인의 생활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말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일본 관광객의 새로운 요구에 발맞추고 동시에 농산어촌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형태의 관광입니다. 이번에는 그린 투어리즘을 통해서 도쓰카와무라의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녁식사 후, 나카미나미 부부와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부는 11년 전 지역의 어린이가 농가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의 한 시설로 민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인기있는 프로젝트였지만, 국가 조성금제도가 없어진 것과 세계 문화유산을 걷고자 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농가민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로 구마노 고도 (熊野古道)를 걷는 사람이 찾는 숙소로, 숙박자의 반이 일본인, 반이 외국인입니다. 작년엔 비하면 숙박객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유럽, 미국, 호주의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물으니, 최근까지는 스마트폰과 몸짓으로 소통 해왔다는 부부. 그리고 3일 전에 구입한 통역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 보다 긴 내용과 다수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실제로 써보니 프랑스어를 일본어로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매우 편리해서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에게 받은 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쓰카와무라의 나카미나미 씨 덕과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인연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맛있는 아침식사를 대접받은 후, 여주인이 채소밭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농가민박은 숙박뿐만 아니라 농가체험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계절에 따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다르지만, 이번에는 여름 채소를 뽑았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토마토, 가지, 오이 등 싱싱한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직접 뽑은 채소를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도회지에서 온 저에게는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카미나미 씨 부부의 다정함과 미소 덕분에 도쓰카와무라 여행은 언제까지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도쓰카와무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일본요리와 함께 지역민들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을 해보고 싶은 분은 꼭 일본인의 후한 대접과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농가민박을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637-1221 나라현 요시노군 도쓰카와무라 우치노 198

(奈良県吉野郡十津川村大字内野 198)

상세내용 : [homepage](#)

예약방법 : [KUMANO TRAVEL](#)



## 키리다스 KIRIDAS

일본에서 가장 큰 촌(村)인 도쓰카와무라(十津川村)는 96%가 삼림으로 임업은 이 곳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도쓰카와무라는 2011년 대형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임업재생에 힘을 쏟았습니다. '산을 보호하는 것은 산사람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임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임업의 6 차산업화에

### 6 차산업화란 ?

농림어업자가 임업이나 농업의 생산(1 차산업) 뿐만 아니라 가공(2 차산업)과 판매, 유통(3 차산업)도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농산어촌을 활성화 하는 대책입니다.

도쓰카와무라식 6 차산업화는 이곳을 봐주십시오.

<https://www.totsukawaforestry.jp/>

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임업재생 대책의 일환으로써 2017년 개업한 것이 KIRIDAS (키리다스)입니다.

KIRIDAS는 나무를 '베어 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도쓰카와무라의 목재로 만든 수제 목공품과 가구를 전시,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KIRIDAS는 산에 둘러싸여 있고, 산뜻한 흰색의 건물은 초록의 산과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은 공장입니다. KIRIDAS 운영자 중 한 명인 나카야마 씨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건물은 도쓰카와무라에서 빌려 세 명이 공동운영하고 있다는 나카야마 씨. 나카야마 씨는 관동지방 출신으로 도쓰카와무라의 구인광고를 보고 가구를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가구를 만든 경험은 없었지만 도쓰카와무라의 장인(職人)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KIRIDAS에서 만드는 가구는 세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KIRIDAS ORIGINAL'은 KIRIDAS의 장인이 디자인한 가구입니다. 'TOTSUKAWA LIVING'은 가구 디자이너 이와쿠라 에리키(岩倉榮利)씨가 디자인한 가구입니다.

그리고 손님 주문에 맞추어 제작하는 오더메이드 가구가 있습니다.

모든 가구는 도쓰카와무라산 삼나무와 편백나무로 만듭니다. 삼나무, 편백나무는 기분좋은 향을 냅니다.

KIRIDAS의 가구는 삼나무와 편백나무의 독특한 나뭇결이 아름답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우아한 가구입니다. 포근하고 편안함을 주는 인테리어를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식기나 장난감 등 수제 목공품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도쓰카와무라만의 특별한 선물을 사고

### 이벤트에 대해서

KIRIDAS에서는 수시로 이벤트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쓰카와무라 공원(도시에 도쓰카와무라의 나무로 만든 목재 놀이기구를 기간한정으로 설치하여 공원을 개장하는 '팝업 공원')이나 도쓰카와무라의 숲 우드 페스타, 크리스마스 화환 만들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서는 도쓰카와무라의 나무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도쓰카와무라의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봐주십시오.

<https://www.totsukawaforestry.jp/projects/park.html>

싶은 분은 꼭 KIRIDAS에 가보십시오.

KIRIDAS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카페는 정기휴일이었지만, 토, 일요일은 맛있는 음료와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목공품을 둘러보며 KIRIDAS의 멋진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 어떨까요.

〒 637-1214 나라현 요시노군 도쓰카와무라 야마사키 278

(奈良県吉野郡十津川村山崎 278)

영업시간 : 11:00-17:00 토, 일

상세내용 : [homepage](#)

드니라로크 베로니크

# 나노라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나라현 국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 위해 매일 국제교류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현민여러분과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들께 소개하기 위해 저희들이 나라현에서 찾은 매력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에 흥미를 갖게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후기

### 오춘란 (吳 春蘭 ; Chunlan W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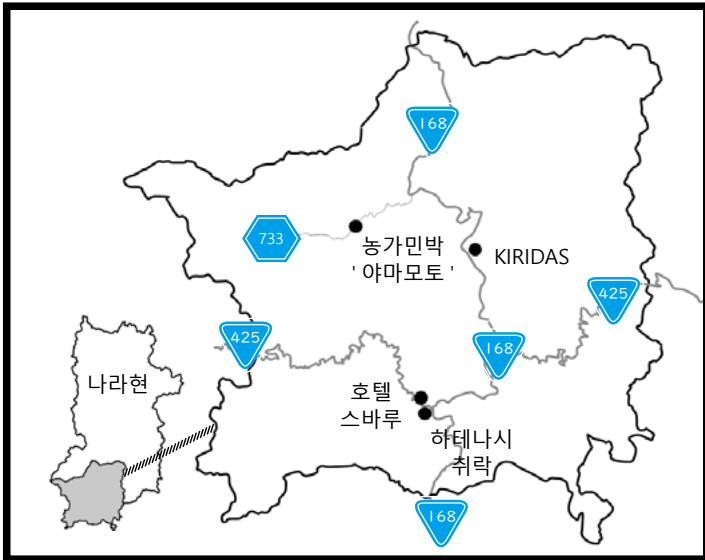
인터뷰를 통해 만난 사람들처럼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활성화에 힘쓰는 사람들 덕분에 도쓰카와무라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村)' 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풍경과 인정 넘치는 대접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하는 곳이 된 것은 아닐까요?

### 드니라로크 베로니크 (Denis-Laroque Véronique)

나라현에 살기 전에는 몰랐던 도쓰카와무라의 정취가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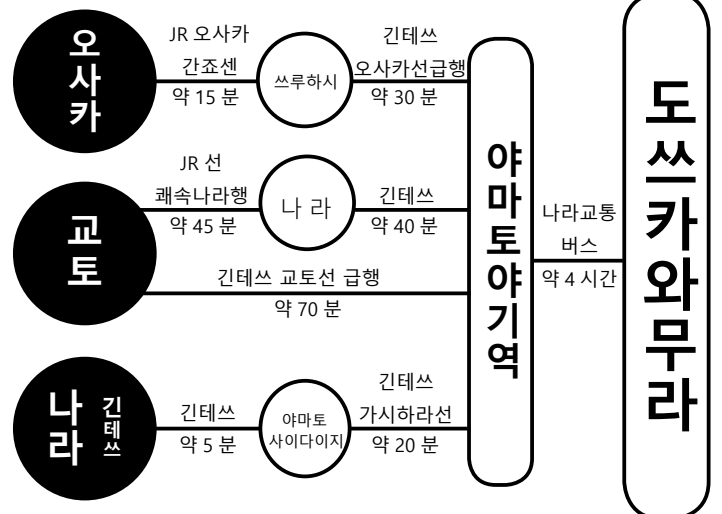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고, 도쓰카와무라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나라현의 세계유산 중 하나인 도쓰카와무라를 횡단하는 구마노 고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때도 또 농가민박을 할 것입니다.

## 도쓰카와무라 (十津川村)



## 오시는길

### 전철을 이용할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오사카에서 : 약 2 시간 20 분 (168 일반도로이용)

교토에서 : 약 3 시간 (168 일반도로이용)

나라에서 : 약 2 시간 10 분 (168 일반도로이용)

## Special Thanks

이번 취재에 협력 해주신 도쓰카와무라 사무소, 호텔 스바루, 농가민박 '야마모토', KIRIDAS, 도쓰카와무라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행 : 2020년 2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8501)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 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0742-27-8477

FAX : 0742-22-1260